



보령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미약품 등 국내 제약사들이 중미서 두 번째로 큰 의약품 시장인 멕시코를 항암제와 심혈관치료제를 중심으로 공략하고 있다(왼쪽 사진부터). 최근 외국기업에 의약품 수입 문턱을 낮춘 멕시코는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도 주목받고 있다.



제약사들이 중미서 두 번째로 큰 의약품 시장인 멕시코를 항암제와 심혈관치료제를 중심으로 공략하고 있다(왼쪽 사진부터). 최근 외국기업에 의약품 수입 문턱을 낮춘 멕시코는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도 주목받고 있다.



제약사들이 중미서 두 번째로 큰 의약품 시장인 멕시코를 항암제와 심혈관치료제를 중심으로 공략하고 있다(왼쪽 사진부터). 최근 외국기업에 의약품 수입 문턱을 낮춘 멕시코는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도 주목받고 있다.



서울아산암병원 '세계 5대 암 치료기관' 선정  
美 뉴스위크지 '분야별 세계 최고 병원'서 발표

## “진입장벽 ↓...12조 멕시코 시장 잡아라”

멕시코 정부 의약품 수입완화 조치  
항암제·심혈관치료제로 공략 나서  
현지기업 파트너링, 세미나 등 활발  
유익미한 해외 진출 성과 기대 커

●멕시코, 중미 두 번째 의약품 시장  
현재 멕시코 의약품 시장은 보령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미약품 등이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주요 품목은 항암제와 심혈관치료제 등이다.

시장 독점을 개선하는 수입요건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2024년까지 유엔조달기구(UNOPS)를 통한 의약품 공공조달과 직접 조달 등 공급선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외국기업의 진입 문턱이 낮아져 국내 제약사들이 멕시코 의약품 공공시장에 진출할 절호의 기회가 마련됐다.

이포(Maypo)와 제약사 치노인(CHINO IN) 등과 국내 관심기업 간의 파트너링이 이루어졌다.

또한 30일에는 멕시코 시장의 한국의약품 진출 및 협력확대를 위한 온라인 역량 강화 세미나도 열린다. 세미나에서는 멕시코의 제약산업 컨설팅 회사인 엑스퍼트사의 후안 파블로 코시오 대표가 나서 현지 의료보험제도 및 보건료 기관 체계, 역할 등의 주제 발표를 한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멕시코 의약품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를 12월까지 매달 개최한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멕시코에 이어 내년에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 중미 및 남미 지역의 시장 진출 역량강화 세미나 및 현지기업 간 파트너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최근 국내 제약사들은 과감한 해외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시장 규모에 한정된 국내에서의 기업활동으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제약업계의 경쟁에서 미래를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꿈인 미국과 유럽 시장의 진출은 높은 진입장벽과 우리 기업들의 경쟁역량 부족으로 인해 아직까지 뚜렷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지역의 진출을 위한 주요한 전진기지이자, 유익미한 해외 진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중미, 특히 멕시코가 급부상하고 있다.

멕시코 의약품 시장은 중남미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약 12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도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잠재력이 풍부하다. 멕시코는 비만율이 전체 인구의 72%에 달해 다른 지역보다 심뇌혈관 질환과 당뇨병 등 각종 대사질환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높다. 또한 지리적으로 미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어 북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국내 업체들이 멕시코 시장에 주목하게 된 데는 현지 시장의 환경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멕시코는 만성적인 의약품 부족 현상을 겪고 있어 정부가 안정적 인 공급을 위해 지난해 1월 자국 기업의

●현지 진출 위해 코트라·현지전문가 협력  
업계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를 중심으로 멕시코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여러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현재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현지 전문가 등과 협력해 멕시코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6월부터는 코트라 멕시코 무역관과 함께 현지 제약사, 유통사와의 비즈니스 파트너링을 연계해주는 제약 파트너링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멕시코 굴지의 의약품 유통사인 마

## “시장규모 13조” 글로벌 동물약품시장도 주목

브랜드·자회사 설립 통해 선점 나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주목하는 또 다른 분야는 동물약품시장이다. 해외 동물약품 시장은 애드바케이퍼마 USA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시장규모가 115억 달러(13조5000억 원)에 달한다.

2026년에는 155억 달러(18조3000억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국내시장에서 기술력을 다진 후 해외로 진출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동국제약은 최근 반려견 전용 치주질환 치료제 캐니돌 정을 내놓았다. 대웅제약은 한국수의정보(현



▲동국제약이 출시한 국내 첫 반려견 전용 치주질환 치료제 캐니돌 정.

대웅펫)를 인수해 동물약품 시장에 진출했다. 종근당바이오도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 라비벳을 론칭한 데 이어 동물약품 기업 이글벳 수의사팀과 제품 개발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그 외 유한양행은 국내 바이오 기업 지엔티파마와 5월 반려견 인지기능 장애증후군 치료제 제다큐어를 출시했고, GC녹십자랩셀은 3월 반려동물 헬스케어 자회사 그라넷을 신설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아직 동물약품 시장이 제대로 완성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선점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 자생척추관절연구소, 척추질환 동물실험 모델 특허 취득

질환 중증도 따른 표준화 모델 개발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는 허리 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와 척추관협착증의 치료법 개발을 위한 두 가지 동물

실험 모델의 특허권을 취득했다.

질환 중증도에 따른 표준화된 동물실험 모델 제작방법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국내 첫 개발이다. 척추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임상에서 보는 척추질환 상태

와 유사한 조건을 갖춘 동물실험 모델 개발이 필수적이다.

하인혁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소장은 “기존 모델은 질환 중증도가 비균일하거나 증상이 장기간 일관되지 지속되지 않아 연구결과 비교가 부정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에

개발한 모델은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했고 이를 통해 척추관절연구소의 기술력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는 현재 특허와 함께 국내외로 한의학 치료법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 서울아산병원(사)의 암병원이 세계 5대 암 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은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23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2022 분야별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2계단 오른 5위를 기록했다. 뉴스위크는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을 암 치료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의 앤디앤더슨 암병원,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센터, 다나파버 암센터, 메이요 클리닉 암센터 등과 함께 세계 5대 암 치료기관으로 선정했다.

내분비 분야도 5위에 올랐고 그 외 소화기 8위, 신경 8위, 정형(외과) 12위, 호흡기 27위, 심장 35위, 심장수술 52위를 기록하는 등 서울아산병원의 8개 임상분야가 글로벌 상위 50위권 안팎에 들었다. 또한 글로벌 순위와는 별도로 암, 내분비, 소화기, 신경, 호흡기, 심장, 심장수술 7개 분야에서 국내 1위를 차지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올해 초 뉴스위크가 발표한 '세계 200대 병원' 순위에서는 세계 34위, 국내 1위에 올랐다.

## 고대의료원, 정밀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고려대 안산병원(병원장 김운영)이 클라우드 기반 정밀 의료 정보시스템인 P-HIS를 도입하면서 고려대의료원 전체에 걸쳐 P-HIS 구축이 완료됐다. 고려대 안산병원은 25일 오전 P-HIS 오픈 기념식을 진행했다. 고려대의료원은 3월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안암병원에 P-HIS를 적용했고, 이후 구로병원에 이어 이번에 안산병원 이 도입하면서 의료원 전체에 P-HIS가 구축됐다. P-HIS는 삼성SDS, 비트컴퓨터 등 8개 ICT 기업의 참여로 개발된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이다.

## 광동제약, 위산 억제 효과 '듀얼파모징' 출시

광동제약은 위산분비 억제와 중화 효과의 위장약 '듀얼파모징'을 출시한다. 일반의약품(OTC)으로 선보이는 듀얼파모징은 위산 생성을 억제하는 파모티딘 성분과 위산을 중화시키는 수산화마그네슘과 침강탄산칼슘을 더했다. 복합제제 특성상 제산제를 따로 먹을 필요없이 1정 복용으로 위산과다 및 속쓰림과 관련된 가슴앓이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파모티딘 제제는 발암우려 물질 NDMA 검출로 판매금지된 라니티딘 제제를 대체해 일반의약품 공백을 메우고 있다. 광동제약은 7월 식약처로부터 파모티딘 복합제제 허가를 받았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오늘의 날씨			30일(목)		
서울 0/0	인천 0/0	춘천 0/0	17 28	18 26	16 27
강릉 20/0	대전 20/0	전주 0/0	18 27	18 27	18 28
광주 60/20	대구 70/20	부산 60/20	19 28	20 27	22 26
창원 60/20	제주 60/30	지역	21 27	22 26	강수 확률 (오전/오후) 최저 최고기온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672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임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소초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귀	소	호랑이	토끼	웅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산기슭에 연못이 있고, 그 연못을 낮춤으로써 산은 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손해를 보면서 얻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여 눈앞의 작은 이익을 버리고 먼 미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사 법을 지켜야 한다.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이나 학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문화,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나의 운기가 쇠해서 서류에 맞지 않을 때에는 재빨리 물러나는 것이 최상의 방도이다. 무리하게 뚫고 나가려 하지 말고 쇠운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한다. 잠시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때이다. 앞서거나 서두르지 말라.	지금은 얼마든지 일을 맡아도 손조롭게 해나갈 수 있는 때이다. 일하면 할수록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고통을 받던 사람도 이제부터는 상승일로에 있다. 자신 있게 밀고 나아가라. 잘못되면 금전적 낭비가 따른다.	사리사욕을 떠나 정의를 관철해 갈 것, 또한 자기 기반을 굳게 닦고 실행할 것, 가급적 폭력은 피하라. 모든 일에 과감하게 나아가지만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맡으면 실패하기 쉬운 때이다. 혼자서 일처리를 하지 말라.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장에 호소하여 민청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첫 인상에서 좋게 느껴진 것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오늘의 기운은 인간의 감각이 발동하는 날이므로 연예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오늘은 낭비할 수 있는 날이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망신수가 따를 수 있다.	과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문서·서류로 인한 주위의 반목과 질시의 분위기가 초래되며, 정신적 불안감이 조성되므로 명예나 이익의 추구보다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써라. 회귀적인 아이디어로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앞으로 운이 좋아지는 때이나 모든 일에 지나치게 쉬우므로 새로운 일을 시작 할 때는 충분히 앞날을 고려하여 행하여야 한다. 급속히 성하고 곧 쇠하는 경향이 있어 시기를 보는 바가 민감해야 한다. 재산상, 정신적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잠시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때이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므로 미련 있는 일이라도 과감하게 손을 떼는 것이 나중에 손해가 적다. 무슨 일이든 앞장서지 말라. 욕심을 부리면 큰 재난이 온다. 공연히 부주한 날이다.	소원하는 일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겠으나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거의 성취되겠다. 먼 곳의 여행은 급한 일이 아니면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손재수가 있으니 도난에 주의하고 도장과 문서를 조심하라. 서두르면 낭패된다. 기다려라.	쌀물의 배는 물이 차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 시기가 올 때까지는 체념하고 기다려야 할 때이다. 태연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은 앉아있기보다 움직이는 날이다.